

근대제주의 기업가 牛公 黃舜河*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연구교수 · 고 광 명

I. 머리말

이 글은 일제하 제주도에 공장 및 회사설립으로 인해 한국의 주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제주도 근대경제 형성에 이바지한 우공(牛公) 황순하(黃舜河)의 기업가활동을 고찰한 것이다. 그는 일본인에 의해 1928년 제주면 건입리에 제주주조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1935년경에 이르러 회사대표 취척역(取締役)으로 선임되면서 주조업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한 근대제주의 대표적인 기업가이다.

우공 황순하가 경영에 참여한 제주주조주식회사는 자본금 4만圓(불입자본금 1만圓)으로 다른 회사에 비해 자본금이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었다. 연간매출액은 3만圓으로 다른 회사보다 가장 많은 배당금을 지불하였다. 신용, 지불, 업태는 B등급으로 다른 4개사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¹⁾ 이처럼 황순하는 근대 제주경제의 실권을 장악하며 지역자본 형성과 제주도민의 주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한 독보적

인물이었다.

아울러 황순하는 해방을 전후하여 이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가의 한 사람으로서 학교설립을 위해 상당한 관심을 가진 교육자이다. 낙후된 지역에 근대산업을 일으켜 지역발전에도 기여했던 그는 조국이 해방되자 국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이 진흥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품고 학교설립에 남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제주도에서 활동한 기업가 황순하가 어떠한 이념과 철학을 바탕으로 오현학원(五賢學園)을 설립하고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발휘하였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지역자본 형성과 주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으며, 궁극적으로 경영활동의 성과인 부(富)를 사회에 환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초석이 되고자 했던 제주도 기업인 우공 황순하에 대한 연구는 오늘날 현대 경영인들에게 많은 교훈을 제시해 줄 것이다.

* 본고의 자료는 김희철·고광명·진관훈(2006)『일제하 濟州島 기업가 연구』, Art21 및 김희철·고광명(2005)『제주도 기업가 牛公 黃舜河 연구』, 『濟州島研究』 제28집, 제주학회 등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1) 岡田寅喜編(1931), 『朝鮮實業信用大鑑』, 日本興信所京城支所, 18~19쪽.

II. 황순하의 생애와 업적

1. 황순하의 생애

근대 제주경제의 대표적인 기업가로 박종실²⁾, 황순하, 강성익³⁾을 들 수 있다. 지금도 제주도에 서는 1920년대 이후 1960년대 초반에 이르는 40년간 상공업 분야에 모범적 인물로 제주시를 중심으로 한 한라산 북쪽에는 박종실, 황순하, 서귀포 일대를 중심으로 한 한라산 남쪽에는 강성익을 꼽는다.

황순하는 1896년(본관은 尙州, 호는 牛公)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에서 탄생하여 1978년 6월 25일에 83세의 나이로 천수를 다하고 사망하였다. 그의 생애는 정치·경제·사회적 변화가 극심한 일제강점기와 분단시대의 사업가였으며 오현학원(五賢學園)을 설립한 교육자이다.

당시 제주에 사는 황(黃)씨는 昌原黃氏가 그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두 개의 계보로 나누어져 그 인맥이 형성되어 왔다. 하나는 대정읍 무릉리를 근거로 하여 13대의 인맥을 이어온 黃德希(宗孫)의 가문이며, 다른 하나는 제주시를 중심으로 살아온 黃進松(門中會長)의 가문이다.⁴⁾ 반면 조천지역에 거주하는 尙州黃氏는 약 13대의 인맥을 형성해 오고 있으나 인구수는 10여 가구에 불과하다. 오현고등학교 교장(1967.5.27~1999.1.31)을 역임한 黃秉善은 상주황씨로서 黃

石柱(上護軍)의 후손이다.

상주황씨 가문에서는 황병선의 선친인 황순하가 지역사회의 사업가와 교육자로서 많이 알려져 있다. 1946년 2월 15일 제주제일중학원을 설립하여 사립의 명문인 오늘의 오현학원을 육성하고 인재를 양성하는데 사재를 털어 기여했다. 그는 이 지역의 교육진흥에 불멸의 금자탑을 쌓은 인물로 그 업적이 높게 평가된다.⁵⁾

또한 그는 다년간 주조업을 운영하여 자본을 축적하는데 성공하여 제주상선주식회사(1922), 제주주조주식회사(1928), 제주도산소주판매주식회사(1935), 제주도해조주식회사(1938) 등에서 취체역을 역임하였다. 이후 1939년 제주도어업조합 감사, 1942년 조선해면기업(주) 취체역, 동년 제주도물산(주) 취체역, 1943년 영화 연극 및 부대사업을 취급하는 조일구락부(주)를 설립하여 감사역을 역임하였다. 이처럼 그는 여러 사업을 경영하면서 이재에 성공하고 전라남도평의회원으로 당선되어 활동하기도 했다.⁶⁾

2. 황순하의 업적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황순하가 달성한 업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당시 오현학원의 탄생은 교육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이 지역에 새로운 教育立國과 輔國安民의 이념을 내세운 황순하의 독지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2) 박종실(1885~1966)은 호는 晴岩으로 1905년 제주최초의 상점인 '朴宗實商店'을 제주면 1도리에 개점하여 상당한 영 업성과를 이룩한 근대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기업가이다. 그는 1922년 제주상선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오랜 숙원사업이던 해운업에 본격적인 경영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근대기업가로 변신하게 된다. 1922년 제주상선(주), 1924년 제주면업(주), 1925년 제주통운(주), 1928년 제주주조(주), 1934년 난곡면업(주), 1935년 제주상사(주), 1936년 삼일해운(주), 1939년 제주상운(주) 등의 취체역과 1935년 소화운송(주) 감사역을 역임하였다. 金榮洽編(2000), 『20世紀 濟州人名事典』, 濟州文化院, 233~234쪽.

3) 康性益(1892~1968)은 호는 南洲로 제주지역의 사업가로 1960년에는 제주도지사를 역임하였다. 1928년 남부운수주식 회사를 설립하여 서귀포를 기점으로 모슬포와 성산포간에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그는 통조림공장과 단추공장을 경영하고 陸海物産 판매업까지 운영하였다. 金榮洽編(2000), 위의 책, 51쪽.

4) 姜龍三(1980), 『濟州의 人脈』, 泰光文化社, 603쪽.

5) 姜龍三(1980), 위의 책, 604쪽.

6) 제주상공회의소(1991), 『濟州商議五十五年史』, 190쪽.

이는 1945년 10월 제주북국민학교에서 조직된 지식층 청년들의 모임인 로고스(Logos)회가 모체가 되었다. 로고스회란 일제말기 일본 학도병으로 전쟁터에 끌려갔던 제주출신을 주축으로 하는 청년들이 해방 후 귀국하여 조직한 단체로써 가난과 문맹 속에서 시달려 온 도민들을 계몽하고 배우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향학의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 근본 취지였다. 로고스란 희랍어로 언어, 이성을 뜻하는 말로서 이 모임의 주요 멤버는 李昇澤, 姜淳現, 金聖萬, 梁明律, 李慶守, 文榮吉, 文太午, 文玉柱 등 이었다.⁷⁾ 이들은 무보수로 교사생활을 자청하고 나선 처지였고, 더구나 학교운영자금 등 재정적 뒷받침은 전혀 없는 상태였다.

이런 여건 속에서 이들은 경제력이 있는 지방유지인 朴宗實, 金斗鉉, 金錫祐, 洪宗彦, 趙大秀 등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청한 나머지 제주제일중학원을 설립할 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갔다. 당시 회원들은 학교설립에 따르는 막대한 자금 소요를 감안하여 당시 전라남도평의회 의원이며 제주주조주식회사 사장이던 황순하를 제주제일중학원 유지회 회장으로 추대하였다. 이를 모태로 동년 10월 22일 오현중학교로 개칭되어 정식 중학교로 인가되었으며, 1951년 오현고등학교가 개설되고 1964년 3월 6일 학교법인 오현학원을 설립하는데 성공하였다.⁸⁾

설립당시 재단법인의 초대 이사장은 황순하가 맡았고 이사로는 金錫祐, 黃清河(1948.8.14~1985.6.19), 黃巨河(1948.8.14~1956.10.1) 등 3인이 취임하였다.⁹⁾ 이후의 재단임원을 보면 이사장 황순하, 이사 金錫祐, 黃清河, 黃巨河, 李慶守, 감사 黃喆河(1949.9.5~1956.10.4), 黃奎河(1949.9.5~1956.10.4) 등 7인이 취임하였다.¹⁰⁾

특히 황거하는 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약 12년간(1956.10.5~1967.3.4) 감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처럼 황순하가 설립한 재단법인 오현학원은 黃氏一家를 중심으로 한 가족주의 경영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현학원은 개교 초기부터 제주지역의 인재양성에 초점을 맞춰 나갔다. 그것이 민족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길이었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그 여건은 열악하였고 4·3의 뒤끝과 전재의 와중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1950년대 초반의 상황은 어느 것 하나 갖춰진 것이 없던 시절이었다. 이처럼 본교는 지난 1951년 전쟁의 포화 속에서 이 나라의 희망은 오직 인재양성이라는 학원 설립자의 취지에 따라 도내 최초로 인문계 남자고등학교로 개교를 하게 되었다.

개교 당시 본교의 교육 목표는 애국인의 양성, 창조인의 육성, 건강인의 육성이었으나 1954년에 자아완성, 애국애족, 인류공영으로 바꿨다. 그 후 1963년 6월 26일 제정된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보장을 위한 준거를 제시하고 사학에 대한 통제와 조성을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정으로 인해 법인 명칭을 재단법인에서 학교법인으로 변경하게 됨에 따라 1964년 3월 6일 학교법인 오현학원으로 개명, 변경인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¹¹⁾

이후 1979년 4월 23일에는 학교법인 오현학원의 제2대 이사장으로 李着賢 여사가 취임하였다. 이 여사는 황순하 이사장의 부인으로서 1978년 6월 25일 타계한 이사장의 후임으로 이사장직을 승계하게 되었다. 황순하 이사장은 1948년 8월 14일 재단법인 오현중학교 유지회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래 31년 동안 오현학원을 이끌어 왔다.¹²⁾

2001년에는 설립자 황순하의 이념을 받들어

7) 姜龍三·李京洙編(1984), 『大河實錄 濟州百年』, 泰光文化社, 112쪽.

8) 姜龍三·李京洙編(1984), 위의 책, 113쪽.

9) 오현고등학교총동창회(2002), 『五賢高50年史(Ⅰ) : 1951~2000』, 134쪽.

10) 오현고등학교총동창회(2002), 위의 책, 148쪽.

11) 오현고등학교총동창회(2002), 앞의 책, 168쪽.

12) 오현고등학교총동창회(2002), 앞의 책, 177쪽.

황병준 이사장이 건학이념을 새롭게 채택하였다. 첫째, 역경에 굴하지 않는 용기, 둘째, 자신을 다스리는 겸손, 셋째, 미래를 창조하는 기상이다. 다시 말하면 건학이념의 키워드는 용기, 겸손, 진취적 기상이다. 이는 평소 설립자의 이념을 토대로 충암(沖菴), 규암(圭菴), 청음(淸陰), 동계(桐溪), 우암(尤菴) 등 오현선생(五賢先生)의 일을 이어받고, 그 동안 선배들이 쌓아 올린 찬란한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건학이념이다.¹³⁾

따라서 황순하는 교육을 통해서만 나라의 기틀을 다져나갈 수 있고 輔國安民을 실행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민족사의 정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갖고 있었다. 즉 그가 기업가로서의 길을 택하고 주조업을 사업영역으로 정한 것은 애국애족 정신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가 지금까지 회사설립 활동을 통하여 축적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것이야말로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Ⅲ. 황순하의 기업가활동

1. 황순하의 기업활동

가. 회사설립 및 경영참여

황순하는 1925년 제주면에 대성통조림공장을 설립하였다. 동 공장은 자본금 4,000원으로 시작하여 전복, 소라 등을 제조하였다. 연간 노동력은 6명으로 연간 470상자를 생산하여 판매한 매출액은 5,520원으로 제주도에서는 소규모의 공장이었다.¹⁴⁾

이후 제주도에서 조직형태를 가진 회사들이 연이어 설립되면서 그는 근대기업가로 변신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는 1922년에 설립한 제주상선주식회사의 취체역으로 취임한 이후 회사설립 운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1928년 제주주조주식회사를 비롯하여 1935년 제주도산소주판매주식회사, 1942년 흥아상공

〈표 1〉 황순하의 회사설립 및 경영참여

(단위 : 圓)

공장 및 회사명	대 표 자	영 업 목 적	설 립	자본금	소재지	국적	소멸 시기	소 멸 형태
대성통조림공장	황순하	통조림제조업	1925	4,000	제주면	한국		
제주상선주식회사	김응두·고석중	해운업	1922	150,000	제주면	한국	1934	해산
제주주조주식회사	衛藤伊三郎·角健輔	소주제조업	1928	40,000	제주면	일본		
제주도산소주판매(주)	이도일	소주제조 판매업	1935	50,000	제주읍	한국	1940	해산
제주도해조주식회사	양두석	해조류판매업	1938	80,000	제주읍	한국	1940	상호변경
제주도물산주식회사	강영효	해륙산물제조업	1941	100,000	구좌면	한국	1943	상호변경
흥아상공주식회사	황순하	해태건조발제조업	1942	100,000	제주읍	한국		
조선해면기업주식회사	황순하	해면기공 판매업	1942	180,000	제주읍	한국		
조일구락부주식회사	萩原駒藏	영화, 연극	1943	21,000	제주읍	일본		
제주무해주조주식회사	이도일	소주제조업	1944	150,000	애월면	한국		

자료 : 朝鮮總督府(각 년도), 『朝鮮總督府官報(1910~1945)』에서 조사 작성.

13) 오현고등학교총동창회(2002), 앞의 책, 209쪽.

14) 朝鮮總督府殖産局編(1940), 『朝鮮工場名簿』.

〈표 2〉 황순하의 취체역 재직기간

(단위 : 圓)

공장 및 회사 명	대표자	영업목적	설립	자본금	취체역	회수
대성통조림공장	황순하	통조림제조업	1925	4,000	-	-
제주상산주식회사	김응두 · 고석중	해운업	1922	150,000	1922-1924	1
제주주조주식회사	衛藤伊三郎 · 角健輔	소주제조업	1928	40,000	1935-1940	4
제주도산소주판매(주)	이도일	소주제조업	1935	50,000	1935-1940	2
제주도해조주식회사	양두석	해조류판매업	1938	80,000	1938-1940	1
제주도물산주식회사	강영효	해록산물제조업	1941	100,000	1942-1943	1
홍아상공주식회사	황순하	해태건조발제조업	1942	100,000	1942	1
조선해면기업주식회사	황순하	해면가공 판매업	1942	180,000	1942	1
조일구락부주식회사	萩原駒藏	영화, 연극	1943	21,000	1943	1
제주무해주조주식회사	이도일	소주제조 판매업	1944	150,000	1944	1

자료 : 〈표 1〉과 동일.

주식회사, 1942년 조선해면기업주식회사, 1944년 제주무해주조주식회사 등의 회사경영에 참여하였다. 특히 홍아상공주식회사(자본금 100,000圓), 조선해면기업주식회사(자본금 180,000圓) 등은 황순하에 의해 1942년에 직접 설립한 회사들이다.

반면 나머지 회사 가운데 제주주조주식회사, 조일구락부주식회사는 일본인에 의해 설립된 회사들이다. 이들 회사들은 대부분 1940년 초반 설립된 회사이지만 자본금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회사설립 및 경영에 관계한 9개사 중에서 1개사는 1930년대 중반에 해산하여 소멸되었으며, 나머지 3개사는 1940년대 초에 해산하거나 상호를 변경한 회사들이다(〈표 1〉참조).

나. 취체역 재직기간

황순하는 1925년 제주면에 대성통조림공장을 설립하면서부터 공장대표로서 제주도 제조업 발전에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보여주었다. 그는 회사설립에 관계된 9개사에서 취체역으로 재직하였다. 취체역의 재직기간은 제주주조주식회사 4회, 제주도산소주판매주식회사 2회를 역임하였

으며, 나머지 7개사에서 1회를 역임하였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 해조류가공 · 판매업 4개사, 소주제조업 3개사, 해운업 1개사, 영화 · 연극 1개사로서 이중 대부분을 해조류가공 · 판매업과 소주제조업에서 재직하였다. 결국 황순하는 제주도 특산물을 가공 · 판매하는 해조류제조업과 소주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표 2〉참조).

2. 황순하의 경영활동

가. 제주주조주식회사

제주주조주식회사는 1928년 5월 4일 일본인 衛藤伊三郎 · 角健輔가 자본금 4萬圓(불입자본금 1萬圓)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제주면 건입리에 설립된 주조회사이다(설립등기는 1928년 5월 16일). 매출액은 3萬圓으로 신용, 지불, 業態는 B급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영업목적은 주류 제조 및 판매업을 주로 하고 기타 부대사업도 취급하였다. 1주당 금액은 500圓이지만 1주당 불입금액은 12圓50錢이다. 당시 경영진 구성을 보면 취체역은 衛藤伊三郎 · 角健輔, 萩原駒藏, 崔允淳, 石井榮太郎, 金根著, 朴宗實 등이며, 감사역은 李允熙, 村田嘉藤治이 선임되었다(준립기간은 만 20년).¹⁵⁾

15) 《朝鮮總督府官報》 1928年8月24日字.

1929년 9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崔允淳을 회사대표 취체역으로 선임하여 취임하였으며,¹⁶⁾ 감사역 李允熙는 같은 해 12월 11일 사임하였다.¹⁷⁾ 1930년 9월 3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역 村田嘉藤治는 임기 만료하여 결원 중인 감사역 西元勝美가 선임되어 취임하였다.¹⁸⁾ 1934년 9월 3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취체역 衛藤伊三郎, 角健輔, 萩原駒藏, 崔允淳, 石井榮太郎, 金根著, 朴宗實, 李允熙 등은 임기 만료하여 중임하였으나 朴宗實은 해임되었다. 또한 동 주주총회에서 회사대표 취체역 3명은 재선 중임하게 되고 감사역 村田嘉藤治는 임기 만료하여 해임되고 西元勝美는 재선되어 중임하게 된다.¹⁹⁾

그 후 동사는 1935년 5월 15일 지배인 西山淨說를 해임하면서 취체역 萩原駒藏를 제외한 취체역과 감사역 西元勝美는 1935년 5월 22일 사임하게 된다. 1935년 5월 2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취체역 黃舜河(회사대표 취체역), 黃鎮秀, 黃清河, 黃巨河, 黃智河 등을 선임하게 된다. 동사는 같은 해 자본금 1만圓을 줄이기로 결의하여 자본금 3만圓, 주당 불입액 37圓50錢으로 정하였다. 또한 동사는 정관 제2조를 개정하여 영업 목적을 주류제조 및 판매, 부동산 매매 등을 취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된다.²⁰⁾

1938년 8월 31일 주주총회에서는 주당 25圓씩 불입하고 주당 불입액을 금37圓50錢으로 변경하게 된다. 동 회의에서 증자 자본금 총액을 2만1천圓, 주당 불입액을 37圓50錢으로 증자할 것을 결의하였다.²¹⁾ 1939년 9월 3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黃舜河는 재선 중임하고 감사역은 임기 만료함에 따라 李着賢이 선임되어 취임하게

된다.²²⁾

1940년 6월 1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증자 자본금 총액을 2만4천圓, 신주 불입액을 37圓50錢으로 증자하기로 결의하였다. 동 회의에서 동사는 주류제조, 판매 및 이에 따른 부대사업,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매매이용, 운송업 및 이에 따른 부대사업으로 정하여 기존의 영업목적을 변경하게 된다.²³⁾ 이후 취체역 萩原駒藏은 1940년 5월 22일 사임하게 된다.²⁴⁾ 1944년 3월 20일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자본금을 10만5천圓으로 증액하고 신주 불입액을 37圓50錢으로 변경하게 된다(1944년 3월 31일 등기).²⁵⁾

나. 제주도산소주판매주식회사

제주도산소주판매주식회사는 1935년 10월 17일 李道一이 자본금 5萬圓을 투자하여 제주읍 이도리에 설립한 소주판매회사이다(설립등기는 1935년 12월 30일). 영업목적은 소주제조, 원료 및 기구기계 소모품 등의 구입과 배급, 제주도산 소주제조, 자금의 융통 등을 취급하였다. 주당 금액은 50圓이지만 1주당 불입금액은 12圓50錢이다. 경영진 구성을 보면 취체역으로 李道一, 宋權殷, 黃舜河 등이며, 감사역은 姜文玉, 金聖錫 등이 선임되었다(존립기간은 만 20년).²⁶⁾ 1936년 2월 26일에는 제주읍 이도리 押切祐作을 지배인으로 선임하지만(1936년 1월 6일 등기) 1939년 12월 25일에 사임하게 된다.²⁷⁾ 1937년 9월 3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역 金聖錫은 사임하고 高溶基가 감사역에 선임되어 취임하게 된다.²⁸⁾ 1938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역 高溶基는 재선되어 중임하고 姜文玉은 임기 만료함에 따라 康洪斌가 선임되어 취임하게

16) 《朝鮮總督府官報》 1929年12月7日字.
 17) 《朝鮮總督府官報》 1930年2月18日字.
 18) 《朝鮮總督府官報》 1930年11月12日字.
 19) 《朝鮮總督府官報》 1934年10月31日字.
 20) 《朝鮮總督府官報》 1935年7月13日字.
 21) 《朝鮮總督府官報》 1938年10月13日字.
 22) 《朝鮮總督府官報》 1939年11月21日字.

23) 《朝鮮總督府官報》 1940年7月20日字.
 24) 《朝鮮總督府官報》 1940年12月20日字.
 25) 《朝鮮總督府官報》 1944年4月28日字.
 26) 《朝鮮總督府官報》 1936年2月20日字.
 27) 《朝鮮總督府官報》 1936年2月26日字.
 28) 《朝鮮總督府官報》 1937年11月13日字.

된다.²⁹⁾

그 후 1939년 3월 29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동사의 취체역 3명을 5명으로 줄이면서 취체역 黃舜河, 宋權殷과 회사대표 취체역 李道一은 임기 만료하여 동일 총회에서 재선되어 중임하게 된다. 증원된 2명의 취체역에는 金文奎, 康洪斌가 선임되어 취임하게 되고, 감사역 康洪斌는 동일 사임하면서 동일 총회에서 姜文玉이 선임되어 취임하게 된다.³⁰⁾

1940년 3월 21일에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취체역 5명을 6명으로, 감사역 2명을 3명으로 증원하게 된다. 동일 동 총회에서 증원된 취체역 1명은 高溶基를 선임하게 되고, 감사역은 전원 임기 만료하여 姜文玉은 재선 중임하고, 결원 2명은 金澤弘典, 韓行徐를 선임하여 취임하게 된다.³¹⁾ 동사는 1940년 11월 29일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게 되고, 동 회의에서 취체역 李道一(대표 청산인), 黃舜河, 高溶基 등을 청산인으로 선임하고 청산 종결하게 된다(해산등기는 1940년 12월 13일).³²⁾

다. 제주무해주조주식회사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소주회사의 설립과 더불어 제주에서도 지역별로 희석식 소주회사가 설립되기 시작하였다.³³⁾ 당시 제주도에는 1944년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리에 제주동주조주식회사, 1945년 서귀포시 서귀동에 제주남주조주식회사 등의 소주회사가 잇달아 설립되었다³⁴⁾. 그리고 제주무해주조주식회사는 1944년 李道一이 자본금 15萬圓를 투자하여 애월면 하귀리에

설립된 주조회사이다(설립등기는 1944년 8월 11일). 영업목적은 소주의 주조, 제조, 판매 및 기타 부대사업 등을 취급하였다. 1주당 금액은 25圓이지만 1주당 불입금액은 25圓이다. 경영진 구성을 보면 취체역은 李道一(회사대표 취체역), 高溶基, 金文奎, 黃舜河, 朴嚴藏 등이며, 감사역은 康洪斌, 高載崙 등이 선임되었다.³⁵⁾

IV. 황순하의 사회적 공헌

1. 황순하의 오현학원 설립

해방이후 근대제주는 내일의 생사를 전혀 가늠할 수 없는 공포와 불안, 그리고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고통과 역경의 혼란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 제주도정 활동은 4·3 이재민 복구사업, 기층민 지원사업, 피난민 정착사업, 수재민 구호활동, 재해복구사업을 중심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재해복구와 구호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제주도 지식인들은 미래지향적인 인재교육을 위한 교육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결국 제주도의 사회·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최악의 여건 속에서 1951년 9월 우공 황순하에 의해 오현학원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 무렵 황순하는 이미 육영사업에 뜻을 굳히고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는 제주도 교육발전을 위한 학교설립에 필요한 기금을 내놓아 1946년 2월 제주제일중학원을 설립하게 되었다. 당시 설립자 황순하는 학교설립 기본 재

29) <朝鮮總督府官報> 1938年5月25日字.

30) <朝鮮總督府官報> 1939年6月6日字.

31) <朝鮮總督府官報> 1940年5月1日字.

32) <朝鮮總督府官報> 1941年1月17日字.

33) 한국의 소주는 날씨가 춥고 잡곡이 많이 생산되는 함경도, 황해도, 강원도, 평안도지방에서 많이 만들어졌고, 여름에는 더위로 인하여 약주를 빚을 수 없는 남부지방에서 많이 빚어졌으며, 몽고의 기지가 있었던 개성, 안동, 제주에서 특히 성행하였다. 吳成東(2003), 「韓國 燒酒產業發展에 관한 史的 考察」, 『경영사학』 제18집 제1호, 한국경영사학회, 182쪽.

34) 고정삼(2003), 『제주의 술』, 제주문화, 22~23쪽.

35) <朝鮮總督府官報> 1944年9月28日字.

산으로 현금 100만원과 토지 21만7,947평(한림면 협재리 2435번지 외 315필지, 시가 435만원 상당)을 기부하였다.³⁶⁾ 이는 제주교육 분야에서 대단한 결단이고 획기적 사건으로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제주도 미래를 개척하는 인재육성을 위한 오현학원의 출현은 오늘의 제주를 창조한 초석이 되었다고 사료된다.

이 외에도 황순하 5형제(黃清河, 黃巨河, 黃喆河, 黃奎河)는 1936년 6월 18일에 그의 부친 황진수의 회갑기념으로 2천원을 희사하였다. 1천원은 출생지인 조천읍 조천리 유년교육사업과 나머지 1천원은 남원면 위미리 교육사업에 기증한 바 있다.³⁷⁾

이렇듯 황순하는 평소 어떤 일에 종사하든 간에 자기에 앞서 이웃과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만이 올바른 삶의 자세라고 가르쳤다. 이러한 설립자의 교육관과 정신은 현재까지 '學行一致'라는 교훈으로 오현의 교육 현장에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 후로 50년이라는 세월동안 교육입국이라는 학원설립자의 꿈은 너무도 훌륭한 결실을 맺었다. 2002년 기준으로 보면 수많은 오현학원 출신들이 정치·경제·문화·체육 등 국내 각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당당히 수행하고 있다.

결국 황순하는 기업의 성공요건으로 인재를 중요시하고 인재양성에 힘썼다. 이는 평소 그의 경영사상에서 알 수 있듯이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한 기업의 경영활동에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황순하의 교육이념은 인재제일주의 정신에서 비롯되었으며 당시 오현선생(五賢先生)의 영향을 받은 바 크다. 그의 교육목표는 용기, 겸손, 기상하는 민주적인 도민으

로서의 기질을 길러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참된 인재양성에 두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2. 영업세 납부실적

일제하 제주도내 기업가의 영업실적을 살펴보기 위하여 당시 제주도내 기업가별 납세기록을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시 제주도에서 지역별 영업세(본세) 7圓 이상 납부자는 제주읍 281명(개인 266, 법인 15), 한림읍 147명(개인 143, 법인 4), 애월면 40명(개인), 조천면 53명(개인 32, 법인 19)으로 총 468명이었다. 지역별로 납부금액을 보면 전체 20,743圓87錢 중에서 제주읍 12,383圓19錢(개인 10,281圓54錢, 법인 2,101圓65錢), 한림읍 6,496圓52錢(개인 5,304圓, 법인 1,192圓52錢), 애월면 985圓(개인), 조천면 876圓16錢으로 제주읍이 50% 이상 납부하였다.³⁸⁾

법인회사별 영업세는 제주상사주식회사(490圓56錢), 제주통운주식회사(369圓92錢), 제주상운주식회사(139圓54錢), 제주주조주식회사(118圓12錢) 순으로 가장 많이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황순하는 제주읍내 회사 전체 납부액 1,551圓65錢 중에서 1개사 영업세 118圓12錢(7.6%)와 2개사 견적액 200圓을 납부하였다. 이 외의 제주도 기업가로 박종실은 제주읍내 회사 전체 납부액 1,551圓65錢 중에서 6개사를 포함한 총 1,307圓13錢(84.2%)을 납부함으로써 개별기업가로는 제1위를 차지하고 있다.³⁹⁾ 강성익은 제주읍내 회사 전체 납부액 1,551圓65錢 중에서 1개사 영업세 98圓63錢(6.36%)과 1개사 견적액 100圓을 납부하였다.

한편 일본인 기업가로 제주도내에서 경영활동을 영위한 竹中新太郎은 제주읍내 회사 전체 견

36) 오현고등학교총동창회(2002), 앞의 책, 132쪽.

37) 《동아일보》 1936.06.28, 《조선중앙일보》 1936.07.03

38) 濟州商工會(1940), 『濟州商工會議所設立關係』, 12쪽.

39) 고광명·진관훈(2005), 「제주도 기업가 曁岩 朴宗實 연구」, 『정신문화연구』 제28권 제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16~17쪽

경제살리기

적액 550圓 중에서 1개사 견적액 100圓과 한림읍내 1개사 영업세 92.52圓(100%)을 납부하였다.⁴⁰⁾ 이러한 영업세 납부실적으로 보더라도 황순하는 제주경제의 실권을 장악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했으며 기업가로서 나름대로의 기업이념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V. 맺음말

이 글에서는 누구보다도 근대적인 기업가이

며, 교육자로서 사회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귀감의 된 황순하의 기업가활동을 고찰하였다. 그는 1925년 자본금 4,000圓으로 시작하여 전복, 소라 등을 제조하는 대성통조림공장을 설립한 기업인이다. 특히 그는 1922년에 설립한 제주상선주식회사의 취체역으로 선임된 이후 회사설립 운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제주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일생을 바쳤다. 이렇듯 본 연구에 대한 제주도 기업가 우공 황순하의 기업가활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 제주, 한림읍 법인회사 영업세 납부실적

(단위 : 圓)

법인기업 명	대표자	영업목적	설립년도	자본금	국적	영업세	견적액
제주면업(주)	김근시 · 山口源藏	면화판매업	1924	200,000	한일	90.36	
제주통운(주)	萩原駒藏 · 최운순	운송업	1925	6,000	한일	369.92	
제주주조(주)	衛藤伊三郎 · 角 健輔	소주제조업	1928	40,000	일본	118.12	
제주해운(주)	김임길	해운업	1935	20,000	한국	21.64	
제주상사(주)	박종실 · 角 健輔	유통업	1935	30,000	한일	490.56	
(주)伴商店	角 健輔	잡화판매업	1935	30,000	일본	108.14	
소화운송(주)	김근시	운송업	1935	10,000	한국	98.63	
남선상사(주)	김영희	무역업	1936	50,000	한국	31.66	
제주상운(주)	박종실	해운업	1939	22,500	한국	139.54	
제주목재(주)	문재석	목재판매업	1938	30,000	한국	83.08	
제주수산(주)	김근시	수산물판매업	1940	80,000	한국		100.00
제주산업(주)	竹中新太郎	농산물가공업	1941	100,000	일본		100.00
제주통조림(주)	高山固岸	통조림제조업	1941	50,000	일본		150.00
제주홍아상공(주)	황순하	해대건조업	1942	100,000	한국		100.00
조선해면기업(주)	황순하	해면정제업	1942	180,000	한국		100.00
제주읍 계(15명)						1,551.65	550.00
제주도어업(주)	有吉京吉	운송업	1936	300,000	일본		1,000.00
고정봉회조부(주)	고정봉	화물여객업	1937	20,000	한국		100.00
竹中組(주)	竹中新太郎	화물여객업	1941	20,000	일본	92.52	
제주도산업상사(주)	大村隆行	육해산가공업	1940	50,000	일본		
한림읍 계(4명)						92.52	1,100.00
총계(19명)						1,644.17	1,650.00

출처 : 濟州商工會(1940), 『濟州商工會議所設立關係』, 4~6, 12~15쪽.

40) 고광명(2005), 「일제하 濟州島 기업가의 공장·회사설립과 경영활동-南州 康性益과 牛公 黃舜河를 중심으로」, 『濟州島研究』 제27집, 제주학회, 23쪽

첫째, 황순하는 한말의 혼란기에 태어나 일제의 식민지시대, 해방 직후의 혼란기 등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기업가로서 일생을 보냈다. 그의 50여 년 동안의 기업가활동은 제주도 기업의 발자취를 나타내기도 있기도 하며, 제주도 회사 및 기업가 연구에 있어서 귀중한 자료가 된다.

둘째, 황순하는 제주도에서 전복, 소라 등을 제조하는 대성통조림공장을 설립하였다. 이는 제주도 근대공장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나아가서는 제주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황순하는 일인(日人)자본에 의해 설립된 제주주조회사를 경영하면서부터 제주도 소주제조업의 발전에 새로운 기틀을 만들었다.

넷째, 황순하는 인재양성을 생명처럼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근면과 절약을 바탕으로 한 성실하고 검소한 기업가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섯째, 황순하는 현대적인 산업을 일으켜 부를 축적하여 그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경영자 윤리를 몸소 행동으로 보여준 기업가였다.

결론적으로 일제시기 제주경제는 많은 경제적 변동을 경험한 가운데 황순하에 의해 설립되었던 회사자본은 일인자본에 비해 자본 경쟁력이 열위에 있었다고 하지만 그 성격이 매우 독립적이고 자율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황순하는 제주도 특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해조류와 소주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제주지역의 교육발전에 공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기업가활동을 통한 이익을 부의 축적에만 그치지 않고 유년교육사업, 학교설립 등 '부(富)'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모범적인 기업가상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그의 노력으로 제주도 경제가 활성화되었고, 교육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姜龍三·李京洙編(1984), 『大河實錄 濟州百年』, 泰光文化社

岡田寅喜編(1931), 『朝鮮實業信用大鑑』, 日本興信所京城支所.

고광명(2005), 「일제하 제주도 기업가 사례연구-남주 강성익과 우공 황순하의 경영활동」, 제24회 제주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고광명(2005), 「일제하 濟州島 기업가의 공장·회사설립과 경영활동-南洲 康性益과 牛公 黃舜河를 중심으로」, 『濟州島研究』 제27집, 제주학회.

고광명·진관훈(2005), 「제주도 기업가 晴岩 朴宗實 연구」, 『정신문화연구』 제28권 제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고정삼(2003), 『제주의 술』, 제주문화.

金榮洽編(2000), 『20世紀 濟州人名事典』, 濟州文化院.

東洋經濟新報社編(각 년도),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吳成東(2003), 「韓國 燒酒產業發展에 관한 史的 考察」, 『경영사학』 제18집 제1호, 한국경영사학회.

오현고등학교총동창회(2002), 『五賢高50年史(1) : 1951-2000』.

濟州商工會(1940), 『濟州商工會議所設立關係』.

제주상공회의소(1991), 『濟州商議五十五年史』.

朝鮮總督府(각 년도), 『朝鮮總督府官報(1910~1945)』.

朝鮮總督府殖産局編(1940), 『朝鮮工場名簿』.

《동아일보》1936.06.28, 《조선중앙일보》1936.07.03.